

병원감염에 관한 제언



글·이철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병원 감염에 관하여 필자가 미국유학 시절에 겪은 두 가지 이야기를 우선 하려 합니다. 1984년에 Brown 대학 부속 Women & Infants' Hospital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 Fellow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회진에 참여하는 날이었는데 회진 중에 교수가 회진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군요. 무조건 뒤를 쫓아갔더니 sink대에서 손을 닦았습니다. 나머지 회진팀은 그 자리에 그냥 있었고 저만 교수를 쫓아간 것이지요. 회진팀은 교수가 진찰시에 미숙아를 만졌기 때문에 손을 닦으리라는 것을 알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사실을 모르는 저만 교수를 따라간 것입니다.

또 Women & Infants' Hospital 신생아과 Grand Round의 주제가 Hospital Infection 이었습니다. 강의를 맡은 교수가 강단 뒤 무대에서 모자, 마스크, 발

싸게, 수술복을 입고 중무장을 하고서 우주인처럼 등장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더군요.

그러더니 걸쳤던 것 하나 하나를 다 벗어 던지고 나서는 신생아 병원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과거에는 신생아실 출입 시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쓰고 입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아무 것도 필요 없고 이 손 하나만 잘 닦으면 병원감염은 극복된다고 이처럼 연극과 같은 과장된 행동을 보여주고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기본이 무시되고 법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으며 기초질서나 예절도 소홀하게 취급되는 사회입니다. 자기 목숨만이 아닌 수십명의 생명을 책임진 버스운전사가 예사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난폭 운전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새 상가건물의 외벽을 비싼 대리석으로 마감하고 곧바로 각종 자극적인 색의 불법 간판으로 건물 전체를 도배를 하면서 신축건물 외벽을 왜 그렇게 비싼 마감재를 사용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 일상화되어서 법을 지키는 사람만 우스워지는 사회입니다.

공중 보건 위생문제도 '기본에 충실 생활화' 재삼 강조할 나위없어

역시 공중보건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환경호르몬은 자주 언론의 관심을 받아 신문 방송에 단골메뉴로 오릅니다. 기자들에게는 환경과 호르몬이란 단어를 합성하여 만든 뉘앙스가 아주 신선하고 자극적이라고 생각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환경 호르몬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상생활과

국민건강에 중요한 감염예방에 대한 상식은 진부한 주제가 되어서인지는 몰라도 언론이나 일반인의 주의를 끌지 못합니다. 아직도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한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보급되면서 후진국형 전염 질환인 수인성 설사병은 급격하게 줄어 들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대변이 감염을 일으키도록 노출되는 것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중목욕탕에 입욕하거나, 수영장에 들어 갈때 제일 중요한 수인전염병의 근원인 향문을 청결하게 하는 절차를 생각하여 물을 오염시키는 일을 자주 목격합니다. 이런 무례함은 젊은 사람일수록 더 심하며 상류사회가 즐긴다는 골프장의 목욕장에서도 가끔 목격되는 일입니다... 수영장 관리자들도 입수전 샤워를 통한 향문 청결에 대한 안내보다는 오일 맛사지나 염색약 사용을 금지시키는 데 더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오염된 수영장 물을 먹게되는 어린 수영강습생들을 생각하면 집에서 수도물도 마다하고 정수한 물만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행동인지요.

요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실내에서 개를 키웁니다. 그러나 개의 향문에서 떨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변가루와 대변가루에 섞여 마루바닥에 떨어진 기생충란이 온 집안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듯합니다.

특히 기어다니는 아기가 있는 집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여 지겠지요. 얼마전 외국의학잡지에 실내에 애완 동물을 키우는 어린이의 면역력이 좋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지요. 애완동물을 실내에서 키워 각종 전염병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아서 오히려 면역력이 높아졌다

는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집집마다 수도물을 불신하여 수십만원 짜리 정수기를 설치하여 식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에서는 재사용 Pet병을 사용하여 주는 물은 아무 생각없이 먹고 있습니다. 필자의 병원에 정수기를 설치하고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기로 하고 첫 검사를 의뢰하였더니 세균이 엄청나게 검출되면서 음용불가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유를 조사하였더니 담당직원이 검사할 정수된 물을 생수용 재사용 Pet 병에 담아 수질검사를 의뢰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직원이 수질검사는 소독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일상적으로 널리 재 사용하는 pet 병이 그렇게 오염되었으리라는 상상도 못한 때문이지요. 소독된 지정 용기를 사용하여 다시 수질검사를 의뢰하였더니 음용이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루 빨리 음식점에서 생수Pet병 재사용이 금지되어야 이질, 장티브스, 콜레라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사라지는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예전처럼 끓인 보리차를 주전자에 주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되돌아 가야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여야 하는 좋은 예가 또 있습니다. 한국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기본인 기초체력을 강화하여 기적을 일군 것처럼 말입니다. 뛰는 힘이 없는 데 제 아무리 좋은 기술과 전술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히딩크 감독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기본에 충실하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던져 주었습니다.

「병원감염 예방」은 근무자 위생수칙 철저한

준수로부터

병원감염은 근무자의 손에 의하여 전파된다는 사실은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상식에 해당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으면 손에 붙어 있던 세균과 바이러스는 물리적으로 거의 제거됩니다. 가장 쉽고 경제적이고 효과 만점인 방법이지요. 대신 화학적으로 세균을 죽이려고 살균세제를 쓰면 병원입장에서 보면 경비가 많이 들며, 근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손의 피부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환자 만지고 나서 매번 손을 닦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살균제는 일정시간 손에 바른 후 기다려야지만 살균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병실에서 살균제 바른후 일정시간 기다린후에 손을 닦기란 쉽지 않습니다. 환자 접촉 후에는 가장 쉽고, 비용 안들고, 피부를 상하지 않게 하는 '비누로 흐르는 물에 손씻기'가 정착될 때 병원 감염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진정한 환자사랑이란 손씻기를 열심히 하는 것이며 또한 손을 열심히 씻음으로 인하여 근무자도 거꾸로 환자로부터 자신이 감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간단하고 기본적인 손씻기 행위가 얼마나 철저하게 실행되고 있는 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실 근무자에게 말입니다.

어느 외국인이 신문에 한국 음식점의 위생에 대하여 지적한 글이 생각납니다. 음식점 종업원이 화장실 다녀온 후 손을 씻지 않고 일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올린 글이었습니다. 첨단IT 사회, 인터넷 강국, 이동통신 보급을 세계 상위라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소하다고 생각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기본이 충실한 사회가 더 바람직한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2